

강진군 제7회 현구문학상 공모 총상금 2,000만원

무안군, 6·25전쟁 제76주년 행사 개최

강진군은 1930년대 시문학과 순수시 운동을 이끈 김현구 시인(1904~1950)의 유훈을 시정신과 뛰어난 문학성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제7회 현구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운문(시, 시조, 동시)과 산문(소설, 수필, 동화, 희곡) 2개 부문이다. 부문별 1,000만원, 총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자격은 공고일(2026년 6월 24일) 기준 등단 7년 이상(2019년 6월 24일 이전 등단)의 작가 대상이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국내에서 출간된 단일 저자의 개인 작품이어야 한다. 단, 응모작품집이나 수록작 중 한편이라도 다른 문학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으면 제외된다.

접수기간을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달간이다. 지원자는 시문학과기념관 홈페이지에 있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동일한 응모작품집

4부, 등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시문학과기념관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수상자 발표는 심사를 거쳐 8월 24일 강진군청 및 시문학과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시상식은 9월 11일 오후 2시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1930년대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순수시 운동을 펼치며 한국문학관을 지켜낸 김현구 시인의 문학정신을 이어받아, 문단의 깊이를 더해줄 뜻깊은 작품들이 많이 응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과 시문학과기념관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시문학과기념관(061-430-3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욱 기자



제6회현구문학상 단체 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고민재 기자

무안군은 25일 6·25전쟁 제76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6·25 참전유공자와 보훈가족, 기관·사회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모범을 보여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와 모범 참전용사에 대한 표창을 수여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참전용사의 자녀인 노경자 씨가 3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후원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탁식도 함께 진행됐으며, 노경자 씨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낭독했다.

/고민재 기자

목포시,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2026년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 교육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는 지난 24일 시청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2026년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반부패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법령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청렴 실천의 중요성과 실천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질 행위와 부당한 업무지시 사례를 살펴보고, 조직 내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포시는 공직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섰

/이문수 기자

함평군, 치매안심관리사와 함께하는 '뇌총총+업(UP) 쉼터' 운영

전남 함평군이 경증 치매 환자 어르신의 인지능력 향상과 치매 중증화 예방을 위한 '뇌총총+업(UP) 쉼터'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함평군 보건소는 “내달 23일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 '뇌총총+업(UP) 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도와 광역

치매센터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치매 예방 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증 치매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주 2회씩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치매안심관리사와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의 지원 아래 ▲건강 및 정서 상태 확인 ▲뇌신경 체조 ▲재택교육 문제 풀이 활동 ▲원예·공예·미술치료 등 다양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을 치매안심관리사로 양성·활용해 치매 환자가 익숙한 생활환경 속에서 인지 건강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 환자의 사회적 교류 확대와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전남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영암군이 전라남도가 실시한 「2026년 전남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도내 군 단위 1위를 차지했다. 시상식은 6월 25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렸다.

이번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지방세정 업무 실적을 평가 한 것으로, 영암

군은 세수확충과 세외수입 관리, 세정운영 등 3개 분야 35개 항목 평가에서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영암군은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관리 강화 등 적극적인 세정 시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기관 표창과 함께 7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확보했

다. 김명선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군민들의 성실한 납세와 직원들의 적극적인 세정 업무 추진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군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신안군,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 개최

신안군은 25일 신안군보훈회관에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6·25참전유공자회 신안군지회(회장 장동석)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참전유공자, 보훈가족, 기관·사회단체장,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모범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기념사, 6·25의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행사 마지막 만세삼창을 통해 참석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의지를 다졌다.

/이문수 기자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변을 달리는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요술랜드, 동물농장 등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테마파크

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